

트립플러스



정읍시, 내장산캠핑장에 나무식재

정읍시가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음수를 심었다.

시는 최근 내장산 국광특구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29500만원(도비 7500만원, 시비 1억7500만원)을 투입해 2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8주와 단풍나무 98주 및 낭천나무 1만685주를 심었다.

시는 “그들 부족에 따른 캠핑장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내장산국립공원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속성 녹음수를 심었다.”며 “이번 녹음수 식재를 시작으로 올해 카리반파크 글amping 등 시설을 확충해 확충을 통해 사계절 명품 캠핑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